

설맛이 떡국떡 수익금 교복 보시 '훈훈'

부산불교보현회 부산 중립학교 결손가정 학생에게 교복 지원

중립중학교 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해마다 교복 보시를 포교 활동을 펼치는 봉사 단체가 있다. 재가자 봉사 단체인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이하 보현회)는 14년 동안 지역 학교에 매년 350여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한다.

보현회는 지난 2월 금정중학교에 120만원의 교복비를 지급한데 이어 앞으로 해동중학교, 밀양 홍제중학교 등 학생 25명에게 교복비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이 교복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 이유는 장학지원을 하던 소년소녀 가장 중 한 명이 물려 받은 교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부터다. 안성이 회장은 "당시 교복 물려 입기 운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 입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교복을 물려 입는 것은 절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년소녀 가장들은 달라요. 부모가 없어 낡은 교복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러울까 하는 생각에서 교복지원을 결심했죠."

보현회의 교복 지원이 더 특별한 이유는 매년 설전에 회원들이 직접 떡국떡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지원금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보현회는 지난 32년 동안 300여 정기후원자의 성금을 십시일반 모아 장학사업, 결핵환자 지원, 장애인 후원 등 다

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복지원까지 역력이 미치지 못했고 떡국떡 판매를 고안하게 된 것이다. 떡국떡을 판매하기 위해서 회원들은 발품을 팔아야 했다. 방앗간에 가서 쌀을 빻아 떡을 뽑아 떡국떡을 만드는데 그 양이 쌀 257g마, 총 3000kg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은 부산은 물론 양산 덕계, 마산 지역까지 회원들이 직접 배달을 다닌다. 떡국을 파는 기간은 설날 전 15일 정도로 추운 날씨에 노점까지 운영해 판매를 마무리 한다.

설전 회원들 떡국떡 판매 수익금 모아 14년간 지역 학교에 연 350만원 후원

장학사업, 결핵환자 및 장애인 봉사도

안성이 회장은 "제일 좋은 일이라 해도 파는 물건이 나쁘면 안 쳐다보잖아요. 한겨울에 무거운 떡을 팔러 나가면 춥고 고생스럽죠. 대부분 차가 없으니 퇴근한 남편을 불러 배달을 부탁하기도 해요."라고 전한다. 이렇게 14년 꾸준히 떡국떡을 판매해 나가자 매년마다 보현회의 떡국떡을 찾는 고정 고객이 있을 정도로 인기도 좋다.



보현회는 매년 결손가정 학생들을 위해 교복비를 마련하고 전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금정중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전달하는 사진. 오른쪽 두 번째가 안성이 회장

지난 14년 동안 교복 지원 금액은 5000여만원, 350여명이 새 교복을 입었다. 이렇게 후원 받은 학생이 감사의 인사를 오는 경우도 있고 보현회 봉사자로 찾아오는 학생도 있었다.

보현회는 14년 동안 교복을 후원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함께 사진은 찍지 않는다. 그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이 다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안성이 회장은 "어떤 단체에서 후원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해 학생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최측에서 학생을 세워 놓고 계속 사진을 찍어대니 그 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장님 이런 자리는 데리고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때부터 학생들과 사진은 찍지는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현회의 결손가정 청소년 지원 사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보현회의 몫이다. 보현회 안성이 회장은 "앞으로 계속 변함없이 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청소년 불자를 양성하는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하성미 기자

동산 스님 열반 50주기 문도 교학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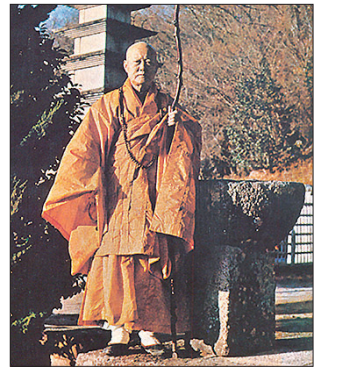
범어사·동산문도회, 5월 3일~11일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와 동산문도회는 동산 스님의 열반 50주년을 맞아 사진전시, 문도 교학대회 등을 마련한다.

5월 3일에는 동산대종사 문도 교학대회를 진행한다. '범어사 및 동산문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갈 길'이란 제목으로 진행되며 기조 발제는 도문 스님(죽림정사 조실, 원로의원)이 발표한다. 세부 발제는 △동산 스님의 사상에 대한 회고-천재 스님(前 법규위원장) △초보 사미의 불교정화 견문록-홍선 스님(범어사 승가대 교수) △동산대종사의 선사상 연구-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등이 이어진다. 또한 △동산 문도의 평화의식과 실천-법상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불교혁신을 위한 동산문도의 역할-범어 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 △94년 중앙총회, 회의록 분석과 용성문도-덕산 스님(불교교단사연구소), △금정총림의 지정과 범어사의 정체성-김광식(동국대 교수)이 각각 발표된다.

또한 범어사는 5월 3일~11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동산 스님의 사진을 전시한다. 전시는 동산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내용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열반까지의 삶을 조망한다. 또한 사진을 모아 8월 중 추모 화보집을 발간 할 예정이다.

범어사는 "동산대종사는 50년대 조계



동산 스님의 생전 모습. 범어사와 동산문도회는 동산 스님 열반 50주년을 맞아 사진전 및 교학대회를 연다.

종단 중정으로서 불교정화운동의 선봉이였다. 또한 종단과 동산문도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이에, 범어사와 동산문도회는 동산대종사 열반 50주년을 기해 동산대종사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자 한다. 동산문도를 위시해서, 동산대종사 또는 범어사와 인연이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람을 5월 2일~3일 간 범어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접수는 범어사 원주실과 각 말사에서 받는다. (051)508-3636

하성미 기자

제1회 섬섬제 망월지 경북불교대서

두꺼비 문화 콘텐트로 재탄생

제1회 섬섬제(蟻蟻祭)가 4월 19일 대구 망월지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은해사 주지 돈판 스님과 성보박물관장 돈명 스님, 정홍규 신부, 주호영 국회의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생태환경을 측정하는 환경지표 동물인 두꺼비에 문화적 의미를 덧입히는 행사다. 특히 섬섬제가 개최된 망월지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만큼 망월지를 중심으로 두꺼비를 문화콘텐트로 재탄생시

키는 활동의 하나로 이번 축제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5월 초에 대덕산으로 대이동을 시작하는 망월지 두꺼비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시작으로 경북불교대학장 돈판 큰스님의 '내가 만난 두꺼비'와 계명문화대 허남원 교수의 '육수동 망월지 두꺼비 생태보고'가 세미나 형식으로 열렸다.

이와 함께 두꺼비를 소재로 한 시낭송, 시 노래 등의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전국 유명 시인 100여명이 참여한 섬섬제 시화전도 눈길을 끌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1회 섬섬제가 4월 19일 대구 망월지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에서 열렸다.

동명불원-용호종합사회복지관 업무 협약

4월 19일 동명불원 대웅전에서

동명불원(주지 화랑)은 지난 4월 19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과 동명불원 대웅전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식 후원을 약속했다. 협약식에서 동명불원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목표 수립, 저소득 결식 어르신 위한 정기적인 식사대접 및 후원 물품 지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동명불원은 연간 500여만원을

용호복지관에 지원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 저소득 결식 어르신을 위한 식사 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주지 화랑 스님은 "부처님께서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하셨다. 앞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등불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할 동명불원 대외봉사기구 '심우회(회장 성재근)'는 앞으로 용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6월과 9월 독거어르신을 초청 나들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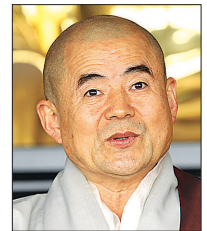
동명불원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함께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불교사상대강연회, 혜국 스님 초청 법회

5월 2일 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부산 부경대 불교교수회(회장 배종일)는 5월 2일 부경대 대연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혜국 스님(사진) 초청 제16회 4·8 봉축기념 불교사상대강연회를 개최한다.

'은명의 논리와 부처님 가르침'이란 주제로 봉행되는 이번 강연회는 부경대 교수 불자회 및 불교 동문회, 불교 학생회가 함께 주관한다.



부산교수불자회 박영병 前 회장은 "16년 전 부경대 불교교수회를 만든 후 학생들을 위한 법회를 마련했다. 특히 학생들이 만나기 어려운 큰 스님을 모셔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절이 아닌 학교 강당에서 대학생을 위한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청도불교사암연합회 청도유등제

청도군 청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안)는 제9회 청도유등제를 4월 17일~19일까지 청도천 파랑새 다리 부근에서 개최했다. 17일 법요식과 점등식에서는 팔공총림 동화 주지 덕문 스님, 천태종 대구 대성사 류화산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정효 정사, 청도불교사암연합회 회원사찰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이 이어졌고 축제 마지막



날에는 인기 가수 박현빈 등이 출연했다. 특히 무대공연과 더불어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기는 불교문화체험과 전통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형형色色 달구벌

달구벌 관등놀이
한지등전시, 문화공연, 문화체험프로그램
5월 2일(토) ~ 5월 5일(화)
오전 10시 ~ 오후 9시
중동교 신천 둔치

연등회법요식 및 연등행렬 풍등날리기
5월 9일(토) 오후 6시 30분
두류공원 야구장 일대 및 달구벌대로

2015형형色色달구벌관등놀이란?
내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축제 달구벌관등놀이가 가지는 연등행렬은 누구나 행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합니다.

관등놀이